

# 한국적 특성을 응용한 퓨전 테이블 디자인 연구<sup>\*1</sup>

박형철<sup>\*2</sup>

## A Research on the Fusion Table Design Reminiscent of Korean Traditional Style<sup>\*1</sup>

Hyung cheol park<sup>\*2</sup>

### ABSTRACT

---

This paper aimed to suggest a new model of fusion furniture design which fits with our surroundings of today. This was performed by grasp and evaluation of recent trend of fusion culture in Korea in order to apply it to the furniture design of fusion style. Fusion furniture design was tried and applied to the table show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 traditional small dining table with modern touch. The result of this paper could also contribute to distribu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in the World.

---

---

\* 1 이 논문은 200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n,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 1. 서 론

## 1.1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지난 20세기가 분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서로 분리되었던 개체들이 새로운 결합과 재구성을 창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날 우리는 이전까지는 생각 못했던 다양한 문화간, 장르간의 통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 융합, 조화를 뜻하는 퓨전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오고 있는 탈 장르, 하이브리드(hybrid), 크로스 오버(cross-over)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위한 문화계전반의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하여, 음악, 미술, 패션, 건축, 디자인을 비롯한 각 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퓨전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조류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한마디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또한 그러한 면에서 얼마든지 문화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우선 명확한 개념정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국내 퓨전문화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자료들을 가구디자인의 과정에 응용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퓨전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전통가구의 특성이 잘 표현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퓨전이라는 이름 하에 각국의 문화가 갖는 개별성이 무시당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창적 가구문화의 특성을 세계에 알릴 한 방법으로서의 퓨전 디자인의 도입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이는 또한 앞으로의 국내 가구 디자인 계가 퓨전 경향을 새로운 창조정신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좀더 발전적이고 주체적인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상의 하나의 방법론적 선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일차적으로, 퓨전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퓨전문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며, 그 전개 양상을 최근의 현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또한, 국내 각 문화분야별 전개 양상 및 특징을 미술, 패션, 제품 및 실내, 가구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가구디자인에서의 퓨전현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실제 가구 디자인의 전개 과정에 응용해 봄으로써 좀더 발전적인 방향의 한국적 퓨전 가구디자인의 모델을 도출해 내도록 한다. 디자인의 결과물의 모델은 컴퓨터 3D 렌더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도표1〉 연구내용과 방법

퓨전문화의 개념파악 및 형성배경 고찰	자료 분석
▼	
오늘날 퓨전 문화의 현상적 유형 및 분야별 전개의 특성 고찰	자료 분석
▼	
한국적 특성을 살린 퓨전 테이블 디자인의 컨셉 설정	자료 분석 및 응용
▼	
디자인 전개	단계적 접근
▼	
3D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의 시각적 제시	결과 도출
▼	
결론 종합 및 제언	결과 종합 및 검토

## 2. 퓨전문화의 일반적 고찰

### 2.1 퓨전문화의 개념 및 형성 배경

‘퓨전’이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의 ‘fuse(섞다)’가 영어식으로 명사화된 ‘fusion’을 한글로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융합, 융해, 혼합, 혼성 등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퓨전문화’라 함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문화가 한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퓨전문화의 소재 자체도 당대 공유의 유행이나 시대상에 따라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그 시대 특유의 문화적 취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문화의 개념과도 공통된 가치를 지니지만, 퓨전문화에는 당대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도전적이고, 새롭고, 신선하다는 부가적인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1960년대 말 마일즈 데이비스가 이전까지의 전통재즈에 전자음악과 펑키음악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접목시킨 퓨전재즈를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로, 음악에서의 재즈와 록, 클래식과 팝 등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결합하는 방식의 실험들이 계속되어왔는데, 이러한 창조적 시도들의 신선한 영향력은 점차 문화계 전반에 있어서 새로움을 향한 각종 움직임에 강력한 모티브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퓨전문화 현상은 20세기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의 다변화 추세와, 디지털,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첨단정보기술의 발전, 동서 이념의 붕괴와 범세계화 추세 등과 같이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난 절충적 질서체계에 기초한 현대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서 그 근원적 원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퓨전문화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 태도로 해석해 냄으로써 실용성과 다양성이라는 명제와 함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2.2 퓨전문화의 현상적 유형

지난 몇 년간 음악에서부터 미술, 패션, 건축, 제품 디자인 등의 분야는 물론 음식을 비롯한 기업의 마케팅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퓨전현상은 급속히 대중화 되어왔다. 이와 함께 동양과 서양,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고전과 현대 등과 같은 기존의 가치체계 속의 경계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미술, 음악, 패션, 제품 및 가구 디자인 등의 경향을 중심으로 이를 대입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적 유형을 유추해낼 수 있다.

첫째, 동·서양 문화 요소간의 혼합을 통한 퓨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그 주요 배경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정보와 문화는 사이버 상에서 전 세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세계의 거의 모든 인구가 쉽게 그 영향권 안에 놓여지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의 만남, 한복과 양복의 혼합 등 동·서양의 정서가 한 곳에 녹아있는 문화의 신경향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동·서양 퓨전문화의 열풍 이전에도 과거 서양의 예술, 공예, 건축의 움직임 가운데 오리엔탈리즘 경향에서와 같이 동양적 요소를 응용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시도한 예는 많았다. 그러나 당시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서구문화에 도입된 동양적 요소들은 동양의 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서구문화의 잣대에 맞춰 소개된 것으로, 문화적 주체의 기본적인 견해와 입장에 있어서 오늘날의 동·서양 퓨전은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동·서양 퓨전은 동양과 서양을 양분하여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고 동·서양의 지리적 차이를 문화적 우열의 관계로 이해한 과거의 관점을 벗어나 비교적 폭 넓은 연구와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퓨전현상은 대등한 의미의 동·서양 문화 통합의 창조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을 초월

한 퓨전현상이다. 지금까지의 문화 변천의 과정에서 양식 발전의 경로는 전 시대의 양식에 대한 거부와 반작용이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양식의 핵심적 주제가 되어왔으므로, 그 사이에는 일련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퓨전문화에서는 각기 다른 시대양식의 요소들을 하나의 양식 안에 통합한다. 클래식과 팝이 만나 이루어내는 크로스 오버 음악, 고대 건축양식과 첨단 재료의 결합으로 지어진 건축, 하이테크 스타일의 실내 공간을 장식하는 전통적 소재의 디테일 등이 대표적 예이다.

마지막으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경계를 없애고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퓨전이다. 대중문화의 확산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일반 대중들도 누구나 손쉽게 고급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급문화로만 치부되어오던 대중의 문화와 전통적 의미의 고급문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다. 고급문화의 중심에 있던 미술품이 전시장 밖으로 나와 좀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대중매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하는 등의 현상은 이러한 움직임을 잘 설명해준다.

## 2.3 분야별 특징 및 평가

### 2.3.1 미술에서의 퓨전

근대적 규정에 의해 중심과 주변의 분류체계가 나뉘어져 장르간의 위계가 세워진 이래로, 미술은 입체와 평면, 회화와 조소, 순수와 응용 등의 일정한 틀 안에서 각각의 영역이 가지는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의 미술은 다원주의 현상을 보이면서 어느 한 장르, 또는 이즘(ism)의 지배도 받지 않으려는 대항 문화적인 실험정신으로 다양한 개념의 변화와 영역의 확장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탈 장르' 현상이 다시 퓨전의 개념으로 계승되어 평면과 입체의 통합 뿐 아니라, 회화와 사진 또는 컴퓨터 그래픽의 합작, 애니메이션과 회화의 합작, 기계공학과 설치미술의 합작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퓨전 미술은 표현 매체의 새로운 개척과,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을 근거로 여러 형태의 또 다른 새로운 장

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결국 전 예술영역의 통합과정의 한 단계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 2.3.2 패션에서의 퓨전

유행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패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스타일간의 접목을 통한 퓨전 시도를 꼽을 수 있다.

한편, 동양의 패션 요소와 서양의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퓨전이 오늘날 패션계의 가장 강력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화려한 동양적 디테일이나 일본, 인도, 중국 등의 전통의상의 모티브 등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서양이 주도하는 패션 계에서 오리엔탈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는데, 대부분이 서구의 시각으로 해석된 동양적 퓨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한복 디자이너로서 세계 패션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몇몇 디자이너들의 활동에서 동양, 또는 한국이 주체가 된 퓨전 패션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 2.3.3 건축,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에서의 퓨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은 서구의 모더니즘을 그대로 도입한 서구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전통 건축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서구의 가치에 종속되거나 혹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시도되는 두 양식의 절충적 시도들은 곧바로 비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고전으로 치부되는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과 현대적 가치로 평가되는 서구 모던건축 사이의 발전적인 합일점을 찾는 일이 현재 국내 건축계의 중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퓨전의 방법을 통해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장점과 우리 고유의 생활 건축 문화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축적 해결의 시도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기능적으로는 오늘날의 생활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감성적, 미학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 실내의 요소를 그대로 살린

절충적 생활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혜택과 자연적 감성,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작업이 첨단 건축·인테리어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퓨전 디자인의 방법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가구에 있어서도 건축·인테리어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2.4 평 가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화조류인 퓨전현상은 영역이나 장르의 경계를 없애고 타 문화, 타 장르와의 합일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냄으로써 정·반·합의 변증법적 프로세스를 통한 문화발전의 결과를 기대하는 이들로부터 전격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계의 모든 문화가 뒤섞여 혼합되는 과정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앞으로의 문화계 전체를 혼란의 상태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혼합과, 융합과정에서의 주체성·정체성 상실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퓨전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한마디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그러한 면에서 얼마든지 그 진행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퓨전 문화 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은 동·서양 문화의 가시적 양식요소들 간의 혼합, 즉 표현 수단의 교류를 통한 퓨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전통적 문화 요소들이 퓨전 문화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가치평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동양적 퓨전 스타일을 그대로 역수입하는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좀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접근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타자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새롭게 변형된 완제품의 퓨전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우리 스스로의 관점으로 일구어낸 주체적 의미의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하

겠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퓨전 현상이 가시적 표현 수단의 교류를 통한 퓨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형적 스타일의 가치보다 내용성의 가치가 잘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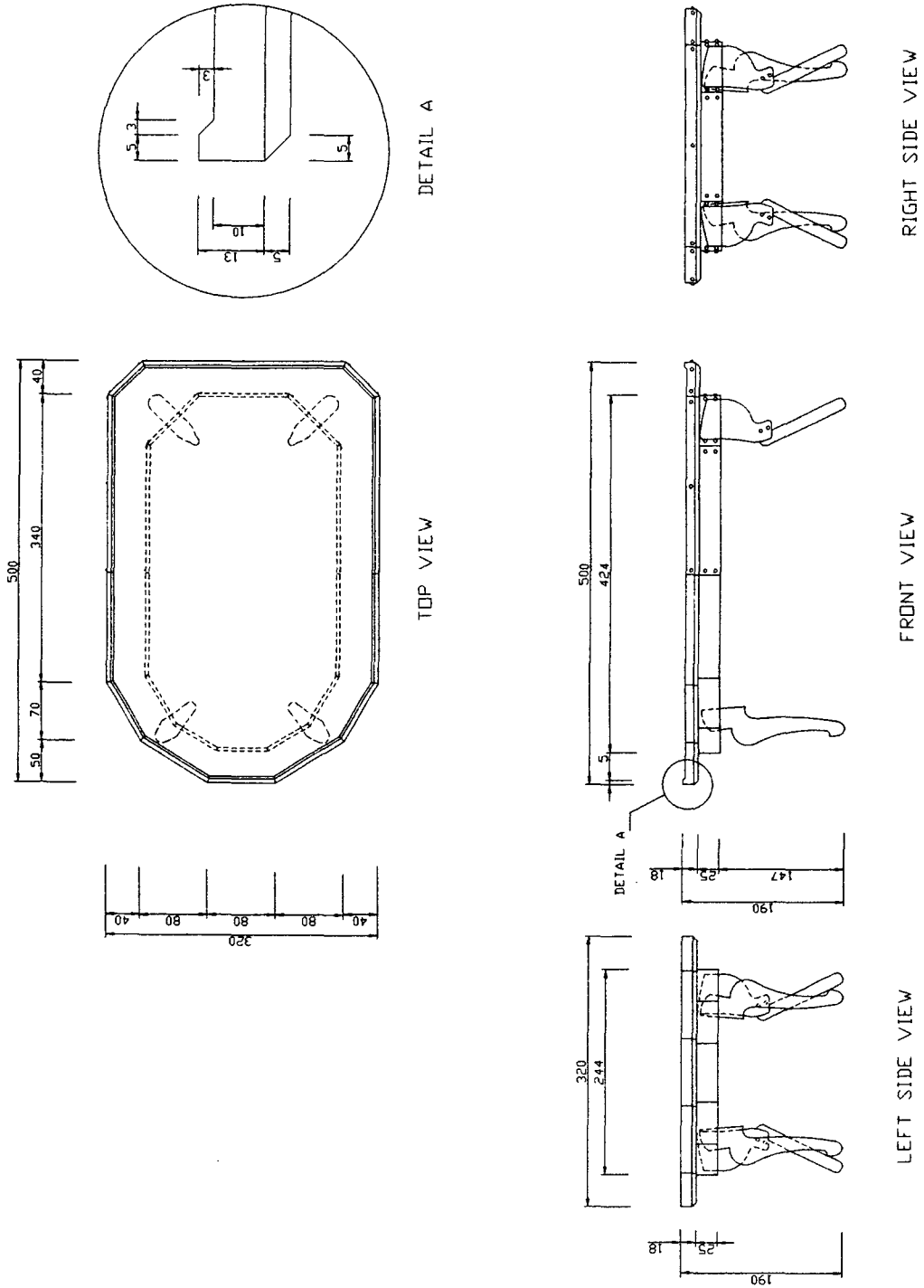
## 3. 한국적 특성을 살린 퓨전 테이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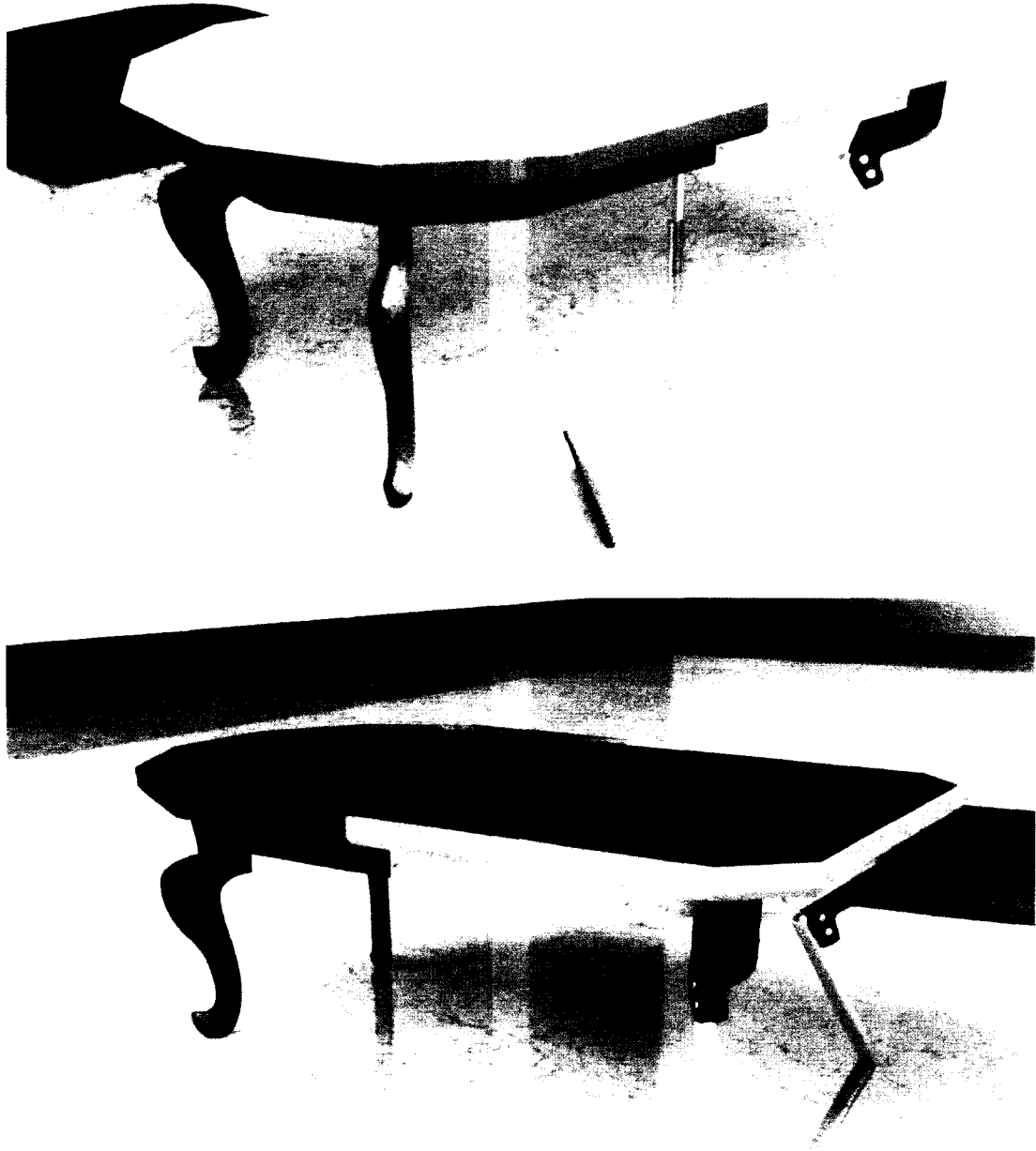
### 3.1 디자인 컨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가구디자인에 있어서의 퓨전 스타일은 외부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변형된 완제품의 퓨전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관점으로 일구어낸 주체적 의미의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전통가구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하며, 우리 전통 가구에 대한 개념적 바탕 위에, 열린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적 퓨전 디자인의 개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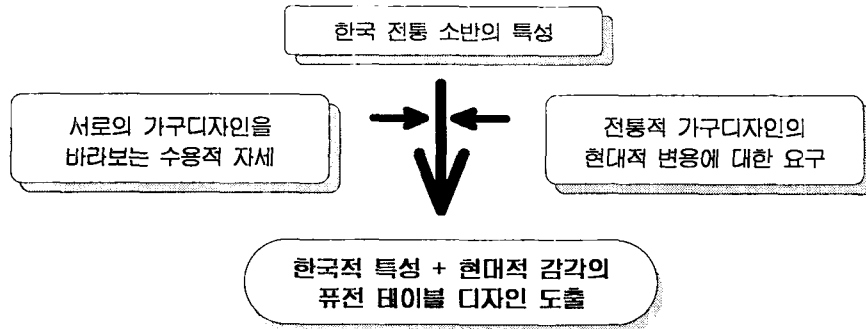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가구의 다양한 아이템 중에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반을 선정하여, 그 특성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없도록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퓨전 테이블 디자인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소반은 독상문화를 발전시켜 온 한국, 일본 등 동양권 특유의 식사용 테이블로서, 보통 높이 20cm 남짓한 것으로부터 30cm에 이르는 낮고 소박한 비례감이 현대 실내 공간 속에 부담 없이 도입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 심미적 측면에 있어서 다리의 곡선과 상판의 비례감, 적당한 운각의 형태가 주는 안정감, 재료 사용과 제조 과정의 과학적 측면 등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한국 전통 목가구의 유려한 아름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으로 꼽을 만하다. 이러한 소반의 형태에서





〈도표2〉 디자인 개념 설정과정



발견되는 특징을 전통적 시각과 현대적 시각의 두 가지 해석법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 재료 선정과 제작 공정상의 전통적 특성과 현대적 특성을 조화시킴으로써 한국 전통 테이블인 소반을 기초로 한 퓨전 테이블 디자인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이는 외형적 스타일의 통합과 내용성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키는 디자인 안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 4.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퓨전문화 현상은 음악에서부터 미술, 패션, 건축, 제품 디자인 등의 분야는 물론 음식을 비롯한 기업의 마케팅전략 등의 콘텐츠 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퓨전문화 현상은 현재까지도 새로운 문화적 변용을 위한 창조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각 문화, 각 국 고유의 주체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그 성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체적 실체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자칫 성급한 일이 될 수도 있으나, 퓨전이 21세기의 초두를 이끌어갈 하나의 주도적인 문화현상이라는 시점으로 볼 때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국내 가구 디자인 계에도 분명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국내 퓨전문화의 전반적 현상에 대해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퓨전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특히, 한국의 전통 목가구 중 소반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의 퓨전 테이블을 디자인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감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퓨전 가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전통 가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현대 가구의 위상도 함께 높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상이한 문화적 요소들의 결합과 조화를 통한 발전적 결과를 유도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 5. 참고문헌

1.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 그래픽스, 1997
2. 노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예경, 1993
3. 류호창, 新 문화코드, 퓨전[월간 디자인 2000년 2월호], 디자인하우스, 2000
4. 심백강, 제3의 사상, 청년사, 2000
5.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6.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 바로 읽기, 소나무, 1997